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COLOR OF AIR

가제 : 공기의 색

저자 : Gail Tsukiyama

출판사: HarperVia

발행일: 2020년 8월 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문학소설



- * 「퍼레이드」 선정 "2020년 여름 꼭 읽어야 할 책!"
- * "유대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는 아름다운 문학 소설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메세지를 담고 있다." -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리사 리

시카고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 다니엘 아베는 유년기를 보냈던 하와이로 돌아온다. 한편 코지아저씨는 다니엘의 어머니이자 그의 사랑이었던 마리코에 대한 기억과 그 옛날 모진 고생을 하며받았던 상처들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코지는 늘 다니엘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며 그를 그리워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다니엘에게 그의 부모님에 관한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한다. 긴 호흡으로 과거와 현재 시점(1935년)를 넘나들며 하와이에 모여 살았던 일본계미국인 이민자들의 삶과 그들의 애환, 비밀, 죄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슬프고도 매혹적인역사 소설이다.

이제 쉰에 접어든 코지 사나다는 1895년 그가 열 살이었던 무렵,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위해 가족과 함께 고국 일본을 떠나 하와이의 힐로 마을로 이민을 왔다. 그리고 바로 이 곳에서운명 같은 사랑 마리코 아베를 만난다. 마리코네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일궈온 망고 농장을운영하고 있었고, 힐로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망고를 생산하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2년전 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일본계 미국인 이민자 공동체는 모두슬픔에 잠겼지만, 그 중에서도 코지의 상실감과 슬픔은 남달랐다. 원래 그는 마리코의 남편이자다니엘의 아버지인 프랭클린과 어린 시절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프랭클린은 '하파(hapa, 아시아계와 혼혈인 미국인)'로 일본인 아버지와 포르투갈-필리핀 혼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미남이었다. 하지만 프랭클린의 아버지는 아내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열일곱 살인 아들프랭클린을 홀로 미국에 버려두고 일본으로 돌아가 새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프랭클린 역시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아내와 자식을 떠나 사라져 버렸다. 그 후 코지는 남겨진 마리코와 다니엘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곁에서 그들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한편 열여덟 살이 된 다니엘 아베는 일본인 최초로 시카고의 한 의대에 입학 허가를 받아 진학을 위해 섬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의사가 되어 다시 하와이로 돌아오기로 결심한다. 고향에 도착하던 날, 마침 공교롭게 자신이 태어나던 날 그랬듯이 한동안 잠잠했던 마우나 로아 화산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다행히도 용암이 힐로 지역으로는 흘러오지 않을 거라는 지질학자들의 말에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 시각, 다니엘이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던 이웃 아주머니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 오카와의 수산 시장에서 축하 모임을 계획하며 잔뜩 들떠 있었다. 그 이모들 중에서 다니엘이 돌아오기를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노리 이모였다. 노리에게는 남편을 따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들 윌슨과 마노가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마노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다니엘을 자신의 셋째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다. 게다가 노리는 어린 시절 부터 마리코와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었기 때문에 마리코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더욱 다니엘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코지와 노리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환영 속에 고향에 돌아온 다니엘은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고등학교 시절의 여자친구 메일리를 떠올렸다. 메일리 역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섬을 떠나 지금은 호놀룰루에서 약혼자와 살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메일리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니엘은 메일리 또한 차마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섬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코지와 노리는 다니엘은 다시 만난 기쁨도 잠시 이제는 그에게 부모님에 관한 진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게다가 예상과는 달리 용암이 힐로 지역 쪽으로 점점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마을에는 비밀을 둘러싼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한다. 과연 이 마을과 다니엘의 부모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잔혹한 농장의 역사, 비밀, 배신, 전통, 우정, 기쁨, 슬픔, 기억과 용서에 관한 아름다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게일 츠키야마(Gail Tsukiyama)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 태생 중국인 어머니와 하와이 출신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에서 예술 학사학위와 영어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Women of the Silk』, 『The Samurai's Garden』, 『A Hundred Flowers』를 포함한 7 개의 소설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Academy of American Poets Award와 PEN Oakland, Josephine Miles Literary Award에서 수상한 바 있다.

제목 : I AM D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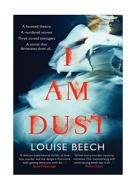
가제 : 더스트 - 저주의 뮤지컬

저자 : Louise Beech 출판사: Orenda Books

발행일: 2020년 4월 16일

분량 : 30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미국판 <분신사바>를 연상시키는 오싹한 스릴러!

- * "사랑, 상실, 살인,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따르는 위험에 대해 섬세한 문체로 이야기 하는 초자연적 스릴러" - 사라 핀버로우
- * "미스터리에 싸인 살인 사건, 그리고 로맨스까지. 이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책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 엠마 커티스

인 윌슨 극장은 20년 전 이 곳의 무대에서 연기했으며 의문사로 세상을 떠난 여배우 모건 밀러의 혼령이 떠돈다는 소문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연기했던 작품이자, 이 극장의 대표작 뮤지컬 '더스트(Dust)'가 20년 만의 재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용기를 내어, 모건 밀러가 당시 연기했던 에스미 블랙의 역할을 맡게 될까? 모건 밀러는 바로 이 더스트라는 뮤지컬을 연기하던 중 탈의실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고, 이후 그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씌인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극장 안내인 클로이는 이 작품이 다시 무대 위에 오르게 되면서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며, 온 세상이 자신을 두고 장난을 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무대 뒤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는 정말 모건 밀러의 유령의 목소리일까?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살인, 집착, 배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매혹적인 동시에 소름이 돋는 으스스한 심리 스릴러이다.

2005년, 십대 또래였던 클로이와 제스, 라이언은 청소년 연극 행사에서 <맥베스>에 참여하고 있었다. 클로이는 레이디 맥베스역을 맡은 제스와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사실 클로이는 오랫동안 제스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품고 그녀를 몰래 짝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제스는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을 가진, 맥베스 역을 맡은 라이언에게 점점 빠져 들고 있었다. 그런 제스를 클로이는 비참한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어느덧 그들의 공연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고, 이제 그들이 지난 한 달 내내 하던 이 '게임'도 마지막이 될 터였다. 이 게임은 귀신을 불러내는 '위지(Ouija)' 보드게임으로, 라이언이 맨처음 클로이와 제스를 꼬드겨 시작한 게임이었다. 공연 마지막 날, 라이언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게임을 하자고 소녀들을 꼬드겼다. 라이언은 세 개의 촛불을 켰고 세 사람은 중앙에 놓여 있는 유리 잔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리고 셋은 언제나 그렇듯이 주변에 누군가 와 있는지 물었다. 곧 유리잔이 바닥에 놓인 글자들을 하나씩 퍼즐을 맞추듯 모아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순간

클로이는 라이언 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한 십대 소년의 모습을 보았다. 그 소년의 이마에서는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곧다시 유리잔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준비 됐어?"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세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해 '응'이라고 답하자 다시 그 소년은 '너희들은 절대 한 지붕 아래에 있어서는 안돼'라는 말을 남겼다. 겁에 질린 제스와 라이언은 그 문장을 보자마자 곧바로 자리를 떠났고 홀로 남은 클로이는 그 날 이후 차차 제스와 라이언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가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클로이는 이제 딜런 윌슨 극장에서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다. 어릴 적 클로이는 처음으로 전설적인 뮤지컬 '더스트'를 엄마와 함께 보면서 당시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여배우의 열정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마법 같은 환희를 느꼈다. 클로이는 이제 그 마법이 사라진 이 곳에서 한 쪽 귀는 뮤지컬에, 한 쪽 귀는 무전기와 연결된 이어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로이는 이어폰을 통해 '절대.... 한.... 지붕...'이라고 속삭이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의아한 클로이는 무슨 말인지 다시 되물어도 대답이 없자 공연장 로비로 나왔다. 클로이는 곧장 동료 체스터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무전을 보냈는지 물었다. 하지만 체스터는 자신은 바빠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대답한 후 그 유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클로이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배우들의 탈의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서 더스트의 뮤지컬 곡인 '나는 한낱 먼지일 뿐'으로 시작되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리고 곧 다시 이어폰을 통해 '절대.... 한.... 지붕...'이란 말이 또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체스터는 자신은 무전을 보낸일이 없다고 했고 대신 곧 더스트가 다시 이 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클로이는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후 모건 밀러의 유령이 출몰한다는 그녀의 옛 탈의실 쪽으로걸어갔다. 하지만 아무 것도 보지 못한 채 돌아선 순간 탈의실 거울에 비친 작은 빛에 가려진 글자들을 보게 되었다. 그 문장은 바로 '너희들은 절대 한 지붕 아래에 있어서는 안돼'라는 문장이었다. 클로이는 그제서야 그 문장이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문장임을 깨달았다.얼마 후 클로이는 새로운 더스트에 참여하는 새 배우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 전혀 예상하지못했던 사람을 발견하며 그녀의 삶 역시 한 순간에 변해버린다. 무대 뒤에서 들려오는 괴이한소리는 정말 모건 밀러의 목소리인 것일까? 그녀를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 왜 세 친구들은 하필이 때 다시 모이게 된 것일까? 위험한 게임으로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는 세 친구들과 미스터리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루이스 비치(Louise Beech)는 2015 년 Guardian Reader's Choice로 선정된 데뷔작 『How To Be Brave』의 저자이며 이 책의 속편인 『The Mountain in My Shoe』로 Not the Booker Prize 후보에 오른 바 있다. 그녀의 세 번째 책인 『Maria in the Moon』 역시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단편 소설을 통해 Glass Woman Prize, Eric Hoffer Award for Prose, Aesthetica Creative를 수상했다.

제목 : WHAT YOU WISH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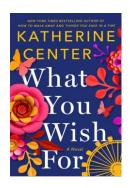
가제 :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

저자 : Katherine Center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20 년 7월 1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노라 에이프런과 제인 오스틴에 비견되는 로맨스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간!

- *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딱 지금 같은 때를 위한 메시지를 담은 소설" - 커커스 리뷰
- *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How to Walk Away』의 저자가 쓴 희망과 감동으로 가득 찬 신작!

학교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는 사만다 케이시는 불운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언제나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 한편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한 교장 던컨 카펜터는 언제든 나쁜 일이 일어날수 있다고 믿으며 언제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고지식하며 답답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역시 언제나 이랬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 사만다는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던 시절 그 곳에서 던컨을만났고 한 때 그를 사랑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4년 후, 사만다는 완전히 변해버린 그의 모습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사만다와 던컨은 이제 과연 용기란 무엇인지, 사랑의 기회를 잡는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희망찬 로맨스 소설이다.

스물 여덟 살인 사만다는 맥스와 바벳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텍사스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다. 맥스와 바벳은 사만다와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었지만 아버지는 소식 조차 끊긴지 오래이고, 열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녀에게 두 사람은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였고 이들 집에서 함께 살며 두 부부와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두 부부 역시 딸 티나와는 오히려 소원한 관계였기 때문에 사만다를 더욱 딸처럼 여겼다. 그녀는 그 두 사람 덕분에 자기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애정도 어마어마했다. 맥스와 바벳은 언제나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학생들을 돌보았고 덕분에 학생들 역시 정서적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맥스의 60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맥스와 바벳은 이탈리아로 두 번째 신혼 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바로 이틀 뒤가 맥스의생일이었기 때문에 사만다는 바벳의 조급한 마음을 금방 알아차리고, 학교 사람들을 포함 300이 넘는 사람을 모아 맥스를 위한 생일 파티를 혼자 준비했다. 하지만 그 파티는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티나를 포함한 맥스와 바벳의 가족들이 사만다를 더 아끼는 두 부부를 보고 사만다에게 대놓고 모욕적으로 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맥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만다에게 춤을 청했다. 사만다는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지만 얼마 후 맥스는 안색이 어두워지더니 피를 토하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그는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폐색전증을 진단받고 사망했다.

얼마 후 자신의 장인이나 학교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티나의 남편 켄트는 학교이사장 자리를 맡았고 학교의 미술 교사로 함께 이 학교를 운영했던 장모인 바벳은 학교를 운영할 상태가 아니라며 '던컨 카펜터'라는 사람이 새로운 교장이 부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렸다. 사만다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던컨은 4년 전 사만다가 다른학교에서 일할 때 만났던 남자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사만다의는 앞에 나타난 던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유분방한 하와이안 셔츠와장난스러운 미소 대신 경직된 얼굴과 깔끔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언제나 규칙과 실리, 안정만을추구하는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어있었다. 또한 던컨은 사만다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같았다.

게다가 그는 학교에 오자마자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던 학교 건물들을 오직 안전을 이유로 완전히 회색으로 칠해버렸고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반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때문에 사만다를 비롯한 학교 직원들은 맥스의 뜻을 지키고 던컨의 독재로부터 학교를 구하기 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만다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때문에 속이 뒤틀리기 시작한다. 이런 증상은 일년에 한 두 번 겪는 아주 희귀한 종류의 신경학적 질환이었다. 사실 사만다는 지금과 달리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슬픔과, 간질 발작 증상 때문에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괴로운 과거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만다는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선택하는 대신 긍정적인 삶을 택하게 된 것이었다.

사만다는 변해버린 던컨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만 여전히 던컨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기때문에 그가 왜 그토록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했고 그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사만다는 어느 날 던컨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 심지어 4년 전 자신을 사랑했지만사만다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고백도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고 어느 날 사만다는 던컨의 몸에서 의문의 상처들을 발견한다. 또한 그가 이전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를 겪었으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강박적으로 학교의 안전에만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은 과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공동체와 사랑의 힘, 용기에 관한 감동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서린 센터(Katherine Center)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로 『Things You Save in a Fire』, 『How to Walk Away』를 포함한 7개의 소설을 출간했다. 그녀는 노라 에이프런과 제인 오스틴에 비견되는 작가로 평가받기도 한다. 최근 그녀는 이야기를 통해 공감 능력을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TEDx 강연에도 출연한 바 있으며 USA Today, InStyle, Redbook, People등에 작품을 기고한 바 있다.

제목 : PROBLEM CHILD

가제 : 문제적 아이 (Jane Doe 시리즈 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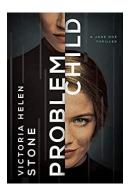
저자 : Victoria Helen Stone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3월 24일

분량 : 26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 15만부 판매를 기록한 아마존 베스트셀러였던 전작인 Jane Doe 시리즈 1권 『Jane Doe』의 후속작 / TV 시리즈 제작 예정
- * "긴장감 넘치는 심리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책" 「라이브러리 저널」
- * "독자들은 제인의 사소한 복수 과정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데 될 것이며 그녀를 이용하려는 모든 이들에서 수치스러운 비열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두운 이야기에도 경쾌함을 가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작가의 소설" - 「퍼블리셔 위클리」

제인 도는 결코 평범한 30대 여자가 아니다.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는 자칭소시오패스로, 차갑고 계산적이며 매력적인 미소로 누구든지 마음껏 속일 수 있다. 제인은 이책의 시리즈 1권에서 한 남자 때문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자신의 친구 멕을 위한 복수를 결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극에 뛰어들었던 여자였다. 하지만 이제 제인은 과거에서 벗어났고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다정한 연인루크와 사랑스러운 반려묘,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고 제인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처럼 스스로의행복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오랫동안 연을 끊고 살았던 가족의소식들 듣게 된다. 그것은 바로 16세의 조카 카일라가 실종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엔 제인은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 카일라의 얼굴을 보자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인은 이번에도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온 제인이 들려주는 서늘한 웃음이터지는 독특한 스릴러이다.

제인은 이제 좀 지루하긴 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며 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인은 계속 피하려고만 했던 가족 중 한 명의 전화를 받는다. 엉망진창인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왠지 모르게 우월감이 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오빠의 전 부인인 조일린이었고 제인은 오빠 리키가 또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변호사인자신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녀가 전화를 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일린은 리키와그의 또 다른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제인의 조카, 카일리가 실종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이어조일린은 카일라의 엄마를 비롯한 그 누구도 그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오직 제인만이 그녀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인은 카일라를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처음엔 그 부탁을 거절 하려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한다. 그것은조일린이 전화를 끊으며 한 말 때문이었다. 조일린이 말하길, 제인과 카일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이 너무나 똑같이 냉혈한에 음침하고 '고모를 닮은 못된 애'라고 말하곤 했다는 것이다.

얼마 후 제인은 조일린이 보낸 카일리의 사진을 보게 된다. 제인은 카일리의 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발견한다. 그 눈은 바로 소시오패스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감이 가득한 눈이었다. 제인은 카일리도 혹시 자신처럼 소시오패스는 아닐는지 의심이 들었다. 또한 제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카일리가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카일리 역시 자신처럼 똑똑한 아이인지 알고 싶어진다. 게다가 때마침 제인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때문에 지쳐 있었고 동거를 제안하는 루크의 곁에서 떨어져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겸 어린 시절 살았던 오클라호마의 마을로 돌아가 카일리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한다. 오클라호마에 도착한 제인은 카일라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교도소에 있는 오빠 리키를 찾아간다. 하지만 리키는 자신의 딸 카일라에 대해 욕설을 퍼부었고 주소도 알려주려 하지 않는다. 그러자 제인은 리키에게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카일라의 주소를 알아낸다. 그 다음 제인은 신입 형사 행세를 하며 카일라의 엄마 집을 찾아간다. 하지만 그녀 역시 카일라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카일라는 리키의 부모님 즉 제인의 부모님과 지내고 있었으며 아마 이제 길거리에서 매춘업을 하며 살고 있을 것이 말하며 포주인 '리틀 독'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려준다. 제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카일라가 자신과 달리 그저 학대 받은 불쌍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실망감이 든다. 그리고 제인은 그제서야 왜 경찰조차도 카일라의 사건에 관심이 없는지 깨닫는다. 카일라는 유색인종에 매춘업에 종사하는 어린 여자애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후 영웅심에 휩싸인 제인은 그 리틀 독이 '브로디'라는 소년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브로디와 카일라가 로이 모리스라는 남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제인은 브로디에게 연락을 취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자 브로디의 친구인 네이트를 칼로 위협해 브로디와 접촉하여 마침내 카일라와 만나는데 성공한다. 제인은 브로디가 카일라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카일라가 브로디를 이용해 성인 남자들을 끌어 모은 뒤 성매매 장면을 몰래 녹화해 그 영상들을 빌미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남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제인은 카일라의 명민함과 교묘함을 보며 자신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지만 오직 카일라만이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카일라를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인도하고 싶다. 제인은 과연 카일라를 그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자칭 소시오패스인 한 여자와 그보다 더 막무가내인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블랙 코미디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빅토리아 헬렌 스톤(Victoria Helen Stone)은 이전에 '빅토리아 달 (Victoria Dahl)'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바 있는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소설가이다. 저자는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수상하는 Reading List Award 수상작인 로맨스 소설로 경력을 쌓은 후 점차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그리는 소설들을 쓰기 시작했다. 또한 아마존 스릴러 부문 베스트셀러였던 Jane Doe는 현재 TV 시리즈 제작을 앞두고 있다.

NON-FI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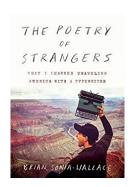
제목 : THE POETRY OF STRANGERS

가제 : 당신들의 시 - 타자기와 함께 한 '시(詩) 버스킹' 여행기

저자 : Brian Sonia-Wallace

출판사: Harper Perennial 발행일: 2020년 6월 30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여행



- * "우리 모두가 얼마나 비슷하면서도 다른지 보여주는 책" 「커커스 리뷰」
- * 절망적인 외로움이 가득한 이 코로나 시대에, 시와 한 장소가 만날 때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는 에세이

여러 차례 수상 경력을 가진 유명 작가이자 시인인 저자 브라이언 소니아 월러스는 문인으로 데뷔하기 전 '시 상점'이라고 적힌 간판을 길에 세워 놓고 타자기 한 대만 들고서 길 거리를 오가는 낯선 행인들에게 시를 파는 일명 '시 버스킹'을 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를 좋아한다는 사실이었다. 아마추어시 버스커였던 그는 길을 지나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에게 어떤 시를 원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행인들은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열망', '사랑', '비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수백 명 그 다음 수천 명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늘어났고 각계 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저자는 진심 어린 통찰력이 담긴 이 에세이를 통해 자신이 시와 함께 미국 횡단 여행을 하며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미네소타에서 캘리포니아 테네시, 노스 다코타에 이르기까지 여행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몰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은퇴한 노동자, 자칭 마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다양한 얼굴들과의 만남은 저자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활기차고 예술 정신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역사상 유례 없는 전염병 사태로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자는 예술이 어떤 특정한 장소와 만나는 순간 사람들을 이어주는 얼마나 위대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꺼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유랑 시인이 직접 목격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너무나도 자신의 속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저자의 이 특별한 여행기는 우리 생각을 자극하고 때론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현재 미국을 갈라 놓고 있는 이 갈등이 만약 우리가 조금만 더 낯선 사람에 용기를 내어 다가가 그들의 시를 듣기를 바랄 때,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갈등과 분열, 외로움으로 병들어가는 오늘 날 미국, 그리고 이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목소리와 그들의 시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목차>

- 1장. 첫 번째 낯선 사람
- 2장. 타자기 사용자가 된다는 것
- 3장. 철도 위의 작가
- 4장. 쇼핑몰의 시인
- 5장. 음악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 6장. 방랑자: 밴을 타고 다니는 시인과의 인터뷰
- 7장. 몽상가
- 8장. 자칭 마녀와 편차
- 9장. 문서, 문서화된
- 10장. 홈커밍
- (이하 생략, 총 14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브라이언 소니아 월러스(Brian Sonia-Wallace는) LA 문화부에서는 창의적인 천재로, 뉴욕타임즈에서는 실망스럽게도 평범한 인물로 묘사 된 바 있다. 그는 Guardian, Rolling Stone 등에 기고하고 있다.

제목 : PEAK PERFORMANCE CULTURE

가제 :100% 퍼포먼스 - 성취력을 높이는 조직 문화 만들기 5가지 핵심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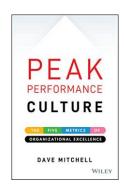
저자 : Dave Mitchell

출판사: Wiley

발행일: 2020년 10월 27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경영



* 그 어떤 형태의 조직에서든 조직 내 성취력 강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경영서

이 책은 회사, 기관, 협회 등 그 어느 조직에든 적용할 수 있는 조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공하는 책이다. 저자 데이비드 미첼은 자신이 고안해낸 이 실용적인 가이드만 차근차근 잘 따라 간다면 회사 및 조직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자신의 베스트셀러 책인 『The Power of Understanding People』에 소개된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적용 방법, 어느 곳에나 당장 투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제 전술. 확실한 조직 평가 도구 등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그는 조직의 성공을 위한 5 가지 핵심 요소 즉, 수직적 정렬, 수평적 정렬, 리더십 이데올로기 및 기업 문화, 직원 경험 및 고객 경험에 대해서 다룬다. 그리고 각 장에서 이 요소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의와 예시, 전문가들의 예리한 의견 및 실제 상황과 관련된 고려 사항 등을 포함하여 어떻게 하면 한 조직 내에서 성취력 강화 문화를 효과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지 그 핵심 요소들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그는 올스테이트 인슈어런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힐튼 월드 와이드, 월트 디즈니 월드와 같은 자신의 고객이었던 100여 개의 유명 기업 및 조직들과 실제로 협력하며 경험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연습안과 평가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직의 미션, 가치 및 전략과 일치하는 정책, 절차 및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면밀히 탐색한다. 또한 높은 성과를 기록한 개인들의 특성, 팀워크를 강화하는 방법, 조직 내 기능 담당 팀과 직원 채용 담당 부서, 의사 결정 부서의 관계에 대해서 따져 보고 고객 만족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바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 또 어떻게 다른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저자는 조직이나 회사가 성과에 있어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과 문화가 확립된 집단이지만 더 높은 수준의 성공을 바라는 그 어떤 조직에서든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을 이 책에 실었다고 자부한다.

이 책은 결국 한 조직만의 '특별한 자원'을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전략을 소개하는 책이다. 직원간의 소통과 고객과의 소통 이 모든 분야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최고의 성과를 발휘하는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실제 사례, 조직 심리학을 바탕으로 조직내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강력한 성과를 발휘하는 조직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감사의 말

서문

"충분히 뚱뚱하고, 충분히 행복한"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이 책에서 알게 될 것

계획을 세우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1 장: 열정의 기초

진정한 열정은 드물다

욕망 대 열정

기쁨의 중요성

열정으로 리드하기

2 장: 수평 정렬

성공 스코어 보드

시장 환경

왜 나야? 핵심 이념

핵심을 구분하는 방법

관념이란?

정렬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다.

(이하 생략, 총 7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데이브 미첼(Dave Mitchell)은 The Leadership Difference의 창립자로서 전세계 최고의 조직소속의 45 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교육 세미나를 제공했다. 또한 그는 여러 차례 올해의 연사상을 수상했으며 『Live and Learn or Die Stupid!』, 『The Power of Understanding People』, 『The Power of Understanding Yourself』 등 세 권의 책을 출판했다.

제목 : THE HUNTING OF HILLARY

가제 : 힐러리 죽이기 - 힐러리 클린턴 마녀 사냥을 위한 음모와 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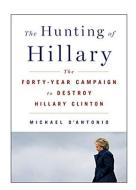
저자 : Michael D'Antonio

출판사: Thomas Dunne Books

발행일: 2020년 9월 1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정치, 회고록



* 보도 부문에서 퓰리처 상을 수상한 저자가 힐러리를 둘러싼 증오와 마녀 사냥을 파헤친다!

- *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전 영부인이자 전직 국무 장관을 쓰러뜨리기 위한 우익 집단의 대대적인 음모에 대한 설득력 있는 조사" — 「미스 매거진」
- * "힐러리의 지지자들은 열광할 것이고 그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워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 - 「커커스 리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거의 4 년이 지난 지금, 이 결과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무리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 그룹은 힐러리 클린턴의 구시대적인 선거 운동 방식과 그녀가 가진 정치적 약점을 지적하며 힐러리가 선거에서 낙선한 것은 온전히 힐러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이러한 종류의 사고 방식을 반 페미니스트적이며 반 체제적이라고 지적하며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에서 진 이유를 거의 전적으로 외부 세력의 탓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사실 미국 역사상 힐러리 클린턴만큼이나 악의적인 비방을 많이 받았던 여성은 없을 것이다. 40년 전 미국 공화당 거물급 정치인 뉴트 강리치는 힐러리를 향해 "암캐(bitch)"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그 후 힐러리는 워싱턴 DC의 한 피자 가게 지하에서 소아성애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부터 훗날 자살한 것으로 밝혀진 백악관 변호사 빈센트 포스터를 살해했다는 음모의 중심 인물이 되기도 했다. 또한 그녀는 냉정한 여자인데다 레즈비언이며 남편인 빌과 정기적인 섹스 파티에 참석하고 포스터 변호사와 바람을 피웠다는 숱한 소문들의 주인공이 되곤 했다. 뿐만 아니라 힐러리는 빌과 함께 '적그리스도'라는 낙인에 찍혀 아칸소에서 죽음의 부대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에 휩싸여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개신교적 유산과 전쟁을 벌여야 했으며 대선 직전 불거진 이메일 사태 등 수많은 스캔들의 광풍을 맞았다. 그리고 지난 대선이 끝나고 정계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를 공격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있었다. 그는 무려 200번이나 넘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녀를 저격한 바 있다.

『The Shadow President: The Truth About Mike Pence』(2018)의 저자이자 「Newsday」소속 저널리스트인 이 책의 저자 마이클 드 안토니오는 다른 전기와 역사서들을 살피며 힐러리를 향한 비난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그런 책들을 쓴 작가가 얼마나 근거 없는 이야기를 썼는지, 단지 자신의 증오심 때문에 얼마나 노골적인 거짓말쟁이가 되었는지 이 책에서 꼼꼼하게 분석했다. 과연 누가, 왜, 힐러리를 '악마 같은 여자'로 만든 것일까?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한 여성이 지난 40년간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살펴보고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 힐러리의 진짜 모습을 밝히는 책이다.

<목차>

- 1장. 이름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 2장. 그녀는 야심가이다
- 3장. 여성 문제
- 4장. 캐리커쳐
- 5장. 멀티 프론트 공격
- 6장. "난 요리가 좋아."
- 7장. 거의 무감각해진 상태
- 8장. 멈출 수 없는
- 9장. 극복
- 10장.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만든다.
- 11장. 혼돈

<저자 소개>

마이클 드'안토니오(Michael D'Antonio)는 Newsday 소속이며, 『A Conquent President』, 『The Truth About Trump, Atomic Harvest』, 『The State Boys Rebellion』 등 많은 저서를 출간했으며, 보도 부문에서 퓰리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또한 Esquire, The New York Times Magazine 및 Sports Illustrated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제목 : QUANTUM LEAPS: How Quantum Mechanics Took Over Science

가제 : 새롭게 읽는 양자 역학 - 양자 역학은 20세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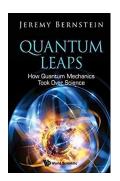
저자 : Jeremy Bernstein

출판사: World Scientific

발행일: 2019년 1월 3일

분량 : 132 페이지

장르 : 과학



* 과학의 경계에서 벗어나 종교적, 철학적, 예술적 관점으로 양자 이론에 대해 새롭게 살펴보고자하는 책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J.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양자 이론이 학계에 등장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양자 이론은 '어떤 시인이나 역사가도 알고 있지 않은 주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60년 만에 양자 이론은 구글에서 최소 900만개의 항목이 검색되는 주요 키워드가 되었으며 시인. 역사가는 물론 영화 평론가. 불교 승려에 이르기까지 언급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양자 역학은 이제 상대성 이론을 제외하고. 과학자들보다 비과학자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있는 대중적인 주제가 된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제레미 번스타인은 60년 이상 양자 이론을 연구한 물리학자로. 하버드 대학교에 있었던 시절 양자 이론의 문제에 대해 매료되었고 프린스턴의 객원 교수이자 여러 권의 과학서를 저술하게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해서 양자 이론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었다. 이 책에서 그는 양자 이론이라는 주제의 중요한 핵심과 그 관련 주제들에 대해 다루는데 기존의 책들과는 차별화되는 점이 하나 있다. 그는 양자 이론을 단순한 과학의 범주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철학적 실험들을 수행한 바 있는 물리학자, 수학자뿐만 아니라 시인 W. H. 오든,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 달라이 라마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양자 이론을 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미셸 우에벡, 레베카 골드스타인, 로렌스 두렐과 같은 소설가들이 자신의 문학에서 양자 이론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묘사했었는지에 대해 탐구하며 더욱 새롭고 참신한 시각으로 양자 이론에 대해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간다. 또한 이 책의 핵심은 한 입자가 수천 마일 떨어진 다른 입자에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해답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일랜드 물리학자 '존 벨 John Bell (1928-90)'의 연구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자는 존벨의 과학적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맑스주의 변증법적 유물론, 종교(주로 불교) 및 뉴 에이지 철학 등 더욱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양자 이론의 파급력을 살펴본다.

양자 역학이라는 어렵고 심오한 이 과학 이론이 어떻게 이렇게 대중 문화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것일까?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한 저자는 이 두 번째 에디션에서 독자들에게 양자 이론의 발전 과정과 그 허점에 대해서 내부자의 재치 있는 시선을 통해 알려주고자 한다. 양자 물리학에 선구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이자,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과학사 책이자 철학서이며, 자연 물리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과학서이다

<목차>

서문

- 1장. 주교들
- 2장. 양자 역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불교도들
- 3장. 레온 로젠필드
- 4장. 이중 구멍
- 5장. 측정
- 6장. 그래서 우리는 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
- 7장. 엘 엔보

부록

<저자 소개>

제레미 번스타인(Jeremy Bernstein)은 뉴저지 주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의 물리학 명예 교수이자 전직 The New Yorker의 전속 필자였다. 그는 소립자 물리학 및 우주론에 대해 주로 강연하고 있으며 The Tenth Dimension: An Informal History of High Energy Physics 및 A Bouquet of Dyson를 포함한 여러 과학서의 저자이다.

제목 : AGING JOYFULLY

가제 : 나이 드는 즐거움 - 즐거운 노후 라이프 대비 매뉴얼

저자 : Carla Marie Manly

출판사: Familius

발행일: 2019년 8월 1일

분량 : 25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정직하고 유머러스 한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몰랐던 노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쁨과 노년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의 통찰력을 제공하는 책." - 『I'm Old, So Why Are n't I Wise?: Sunshine State in Snarky Senior』의 저자, 에리카 맨프레드
- * "이 아름다운 책에 담긴 지성과 공감의 조화는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는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Care of the Soul and Ageless Soul』의 저자, 토마스 무어

50대. 60대에 들어선 여성들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변화들과 마주하게 된다. 피부는 축 늘어지고 성욕이 급증하거나 급강하기도 하며 은퇴의 시기를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도전 과제를 여성들에게 안기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 결과 이 시기를 지나는 많은 여성들이 설명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들과 불안, 심지어는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중 어떤 이들은 젊음의 시기에서 강제로 쫓겨나 인생의 다른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하기도 하고 종종 짜증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노화 앞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분노하는 자연스럽지만 부정적인 반응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인생의 새로운 시기를 맞으며 자신의 새로운 개성과 자유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들은 매우 드물지만 아름답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기술과 지혜를 습득한 사람들이다. 이 책은 바로 늙는 것이란 슬프고 쓸쓸하기만 한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자신 앞에 놓인 또 다른 몇 십 년을 새로운 인생의 기회로 맞이하길 바라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하지만 해마다, 아니 날마다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늙어감을 기쁨과 새로운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심리학자인 저자 카를라 마리 맨리 박사는 50세 이상의 여성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노년의 삶에서 자유롭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나이 들어 갈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다음 항목들에 대한 다정하고 따뜻한 설명을 제공한다.

- 변화와 성숙의 시기를 맞고 있는 나의 몸을 사랑하기
- ㆍ건강상의 변화 및 폐경기, 기억력 변화 등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
- ㆍ변화하는 관계: 관계 역학의 자연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기
- · 일과 은퇴의 세계: 의식적으로 고령화와 은퇴에 직면하기

- 연로 한 부모, 양육 및 이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을 우아하게 돌보고 놓아주기
- ㆍ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따른 속도 저하: 새로운 삶의 역할로 전환하는 기술

100세 시대를 맞아 이제 더 이상 노년을 우울한 노년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단계에 접어들게 된 기회로 생각하고, 여성들이 활기차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자신의 제2의 혹은 제 3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다.

<목차>

머리말

서문

- 1장. 성숙과 지혜, 기쁨을 끌어안기
- 2장. 외면과 내면의 성숙을 받아들이기
- 3장. 나의 아름다움과 성숙을 돌보며 감사하기
- 4장. 당신의 사람들과 역할로 돌아가기
- 5장. 관계와 역할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수용하기
- 6장. 용감하고 열정적인 당신
- 후기. 당신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

<저자 소개>

칼르라 마리 맨리 (Carla Marie Manly) 박사는 캘리포니아 산타 로사에 집을 짓고 있는 임상심리학자이자 작가이다. 그녀는 마음 챙김 이론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기쁨의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목 : PAUSE

가제 : 멈춤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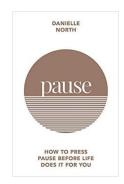
저자 : Danielle North

출판사: Aster

발행일: 2020년 1월 2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심리, 처세



오늘 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구두점 하나 없이 연속적인 문장들로만 이루어진 이야기처럼 변하고 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강도와 끊임 없이 이어지는 바쁜 생활들은 사람들의 내적인 자원과 삶에 대한 사랑을 갉아먹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균형잡인 생활에서 벗어나 완전히 지쳐 있다. 심지어 정말 쉬어도 되는 휴일 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빠져 휴일을 통째로 날리기도 한다. 또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버럭 화를 내거나 분노, 조바심, 좌절감등을 쉽게 느끼곤 한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돼온 이 공허한 상태는 결국 우리의 관계, 일, 삶 전반에 드러나게 되고 과식. 월요병 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우리에게서 창의적인 영감을 죄다 뺏어가 버린다. 총 20여 개국의 최고 경영진과 함께 일하면서 성공적인 임원 코치로 13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는 저자 다니엘 노스는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잠시 멈출 것을 제안한다. 저자는 우리 삶의 다음 문장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멈춰서는 것이 필수라고 말한다. 일단 멈추고 나면 우리 삶을 돌아볼 시회, 전환 혹은 변화 그리고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책 읽기를 예로 들며, 만약 우리가 조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책들을 읽어간다면 머릿속 단어들이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 되는 바람에 그 책속에서 그 어떤 의미도 찾아 낼 수 없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우리가 우리 삶의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르고 나면 마침내 내 자신의 감정 및 직관을 우선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을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 일들은 결코 방종이 아니며 나의 마음과 지혜의목소리를 스스로 듣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또한 그녀는 내 삶을 고요히 바라보는 과정은 절대게으름이나 야심이 없는 무능함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지켜져내려온 고대의 메시지이며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진 수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일시중지'가 가진 이점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실전 과제들을 제공한다. 저자가 말하는 방법들은 우리의 본성과 창의력, 내면의 정신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있던 에너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몸과 정신, 삶 속에서 자유롭게 흐르도록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나의 직관에접근하여 깊게 호흡하며 내 마음 속에서 날뛰는 원숭이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삶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것이다. 나의 마음을 열어 삶의 모든 고통, 기쁨 및 우여곡절을 자유롭게 경험하고 이 과정을 통해 용기와 불, 유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다.

<목차>

죽어가는 숨결

1부.

일시 정지의 힘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일시 정지를 위한 설문지

자연은 당신을 붙잡기 마련입니다.

영혼이 당신을 인도 할 거에요.

창의력은 당신을 타오르게 만듭니다.

2부.

저항

3부

일시 중지를 위한 단계

현재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존재의 이유

당신의 열망은?

(총 4부로 구성)

<저자 소개>

다니엘 노스 (Danielle North)는 HSBC, McKinsey Unilever 및 SAP와 같은 회사의 최고 경영진과함께 일하면서 성공적인 임원 코치로 일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20 개국의 리더들과함께 일한 13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녀는 아시아에서 3 년 동안 거주하며 선구적인코칭 회사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